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 ICE-GB 기반 방책어 분석

-성별 및 학력과 방책어 사용의 관계 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은 주

# ICE-GB 기반 방책어 분석

-성별 및 학력과 방책어 사용의 관계 분석-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은 주

# 인 준 서

김은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ICE-GB를 이용하여 문어체와 구어체로 구분하여 성별, 교육 정도에 따라 방책어의 사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ICE-GB는 구어체와 문어체로 된 100만 단어의 영국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ICECUP 3.1(ICE Corpus Utility Program)을 사용하여 방책어 요소를 검색하여 나온 결과(hits)에 100만 단위를 모든 방책어의 검색 결과에 적용 한 후 각각의 빈도수를 구하였다. 방책어는 어휘동사, 개연성, 적응어, 대략어, 주관성 5가지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첫째,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들 방책어를 전체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어체에서 이들 방책어의 사용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둘째, 교육 정도에 따른 분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학 학력자의 방책어 사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어체 보다는 구어체에서 역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남녀의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 대학교 학력자의 방책어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았으며, 또한 여성 대학교 학력자가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보다는 높았고,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O'barr 와 Akins(1980) 는 여성적 언어 또는 무력한 언어 (Powerless language)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힘에 좌우된다고 보았고, 그들에 의하면 방책어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방책어를 여성적 언어로 간주한 Lakoff(1975)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결과는 위 O'barr 와 Akins(1980)와 Lakoff(1975)의 두 주장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방책어가 반드시 여성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방책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교 학력자가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남성 대학 학력자가 가장 많은 방책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방책어는 사회적 힘과 권위와 연관되며,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적 힘과 권위를 가진 계층이 정중성, 정보 오류로부터 체면 손상의 최소화, 대화에서 특정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성별,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자들이 담화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방책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자 간의 유대 관계나 화자의 방책어를 청자가 잘 파악 할 수 있도록 방책어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목 차

## 논문 개요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의 목적 .....	4
1.3 연구의 구성 .....	6

### II. 이론적 배경

2.1 방책어(Hedge)의 정의 .....	7
2.2 방책어 분류 .....	13
2.3 선행 연구 .....	19
2.4 코퍼스 언어학 .....	24
2.5 성별 언어(Gender Language) .....	27

###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	31
3.2 분석 방법 .....	31
3.3. 분석 기준 .....	32

### IV. 방책어 분석 결과

4.1 남녀의 방책어 사용 비교 .....	35
4.2 교육의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 비교 .....	44
4.3 남녀의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 비교 .....	50

V. 결론 .....	58
-------------	----

## 참고 문헌

## ABSTRACT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과 인간을 매개하고 관계 형성을 위하여 의사 전달은 물론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은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어는 의식 또는 무의식 가운데 사용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오해와 소통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지어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한국 속담 중에 『말은 할 탓이다』 또는 『말은 꾸밈 탓으로 간다』는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로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어를 모국어로서 ‘습득’이 아닌 외국어로서 ‘학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해의 요인들은 영화나 대중 매체를 접하면서 유발되는 피상적인 편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영어권 영화 속에 드러난 어른과 아이, 상사와 부하직원 등의 대화에서 아이와 부하직원은 동양인의 눈에 다소 건방져 보이거나 예의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흔히 접하는 외국인과 대화는 다소 예의를 갖추지 않는 편한 말투로(casual talk)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존대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영어에는 공손한 표현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발화된 문장에서 단어가 가진 기능을 의식하지 않았거나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인 방책어(hedge)<sup>1)</sup>는, 확실치 않은 발언으로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

거나, 체면을 살리는 정중한 표현에서 사용되는 말을 뜻한다. 영어에서는 I suppose, sort of, maybe 와 같은 표현이 그 예이다.

공손한 표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방책어가 표면적으로는 문장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부탁이나, 요청, 명령문 등에서 방책어는 발화의 강도를 약화시켜, 좀 더 정중한 느낌과 완곡한 의사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영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가 이러한 방책어를 잘 활용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언어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 a. Please speak a little louder.
- b. Please speak louder.

(1a) 와 (1b)는 표면적으로 그 의미상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a)의 ‘a little’ 은 단순히 문장의 의미 전달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더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청자의 당혹스러움을 감소시키면서 체면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가령,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주방장이 음식이 어떠했는지 물을 경우, 음식이 조금 짜다는 부정적 의사를 전달한다고 하자. “It’s salty” 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하는 것 보다는 “I think it’s a bit salty” 라고 전달한다면, ‘I think’를 사용하여 개인적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a bit’을 사용하여 부정적 의견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 화자 자신도 냉정하고 까다로운 손님으

---

1) 국내의 정중성(Politeness)에 관한 연구에서 “Hedge”를 ”울타리어“로 번역한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Hedge”가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체면 손상과 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수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방어책(防禦策)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책어(方策語)라고 표현하였다.

로 보이지 않고 예의를 갖추어 전달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표현을 잘 익혀 사용한다면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 보다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으로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sup>2)</sup> A : You have such a cute daughter. How old is she?

B : Well, as far as I know, I think she's almost five.

A : (puzzled look) Isn't she your daughter?

B : No, she isn't. I'm babysitting her.

위의 예문에서 A는 아이가 당연히 B의 딸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확신을 가진 단정적 진술로 대화를 시작 한다. 그러나 A의 확신과 달리 B는 as far as I know, I think 를 사용하여 자신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면서, 아이의 나이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전달 함에 있어서 확신을 유보하고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 하려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지 않으나, a little, as far as, I think 와 같은 방책어는 대화에 있어서 지식의 정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보의 정확성 정도를 나타내어 발화의 질적 측면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화 참여자 간의 신뢰는 물론이며, 유연한 사회적 인간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 감탄사 “어머나”를 남자가 발화하는 것이 어색하듯이 방책어 표현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방책어가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선호하는

---

2) 예문 출처 : 본인 작성

방책어가 달리 실현된다면, 그 사용에 있어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1.2 연구의 목적

언어는 사회적 맥락에서 생성되고 사용되므로, 그 사회의 가치관, 사회 구성원의 특징 등을 반영하는 거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선호하는 언어가 달라 질 수 있다.

제 2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타문화의 가치관, 그 구성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걸린다. 특히나 방책어의 경우 일상 대화에서 흔히 사용되고 특별히 문장에서 주목 받지 못한 채,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방책어는 발화의 정중성, 대화자 간의 체면, 정보의 정확성, 격식의 완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방책어의 사용 여부에 따라 대화자 간의 담화는 질적으로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책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사업상의 회인을 만나는 자리에 약속시간 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을 때 상대방이 오래 기다렸는지 묻는 질문에, "Yes, I came here ten minutes ago" 라고 답한다면, 필요 이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여 상대방을 무안하거나 미안하게 만들어 분위기를 경직시킬 수 있다. 만약 방책어 *a bit* 을 사용하여 "I came here *a bit* early." 라고 답한다면, 격식을 차린 자리라고 할지라도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이 상대방을 오히려 편하게 배려해 줄 수 있기에, 다음에 이어질 대화나 분위기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방책어는 언어 학습에서 사소하지만 담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적, 담화적 역할을 하기에 그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대화의 구성원, 즉 남성과 여성의 언어 사용에서는 선호하는 언어 형태가 있다는 것을 Tannen(1980)은 주장 하였다. 그리고 Lakoff(1975)는 방책어가 여성의 의사 소통적 행위의 특징 중 하나로 보았고, Buikema and Roeters(1982)는 여성이 정중성 전략(politeness strategy)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oats(1988) 는 여성이 대화 참여자의 체면을 존중하기 위해 방책어를 사용한다고 보았으며, O'barr와 Atkins(1980)<sup>3)</sup>은 사회적 지위나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일수록 여성적 언어의 한 형태인 방책어의 사용 빈도는 낮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성적 언어의 특징이 ICE-GB 코퍼스에서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설정 하였다.

1.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를 구어체 및 문어체로 구분하여 어느쪽이 더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2. 교육을 많이 받은 대학교 학력자와 교육을 적당히 받은 고등학교 학력자의 방책어 사용을 분석하여 학력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
3. 여성 고등학교, 여성 대학교, 남성 고등학교, 남성 대학교 학력으로 나누어 성별 교육 수준에 따른 방책어 사용이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지 살펴 본다.

---

3) 2.5 성별 언어 참조

### 1.3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에 이어질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 방책어의 정의를 밝혀 두었다. 방책어(Hedges)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의미론과 화용론에서의 방책어를 구분하였다. 이어서 방책어의 분류를 근접어, 방패어, 인지적 양태로 구분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의미론적 방책어 연구, 사회언어학적 방책어 연구, 담화 전략적 방책어 연구로 나누어 방책어를 알아 보았다. 또한 이 논문이 코퍼스 기반의 연구이므로 코퍼스 언어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 사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성별 언어에 관해 알아 보았다.

제 3장에서는 연구 대상인 ICE-GB에 관해 소개 하였으며, 분석 기준 및 연구 방법을 밝혀 두었으며 제 4장에서 분석 결과를, 제 5장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2.1 방책어(Hedge)의 정의

#### 2.1.1 방책어와 모호함(Hedges and Fuzziness)

『Academic dictionaries and encyclopedias』에서 정의하는 방책어(Hedge)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 hedge is a mitigating device used to lessen the impact of an utterance. Typically, they are adjectives or adverbs, but can also consist of clauses. It could be regarded as a form of euphemism.

이러한 방책어(Hedges)의 개념을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이것의 토대가 되는 모호성(fuzziness)의 개념을 알아본 후, 이러한 모호성이 담화에서 다루어지는 방책어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살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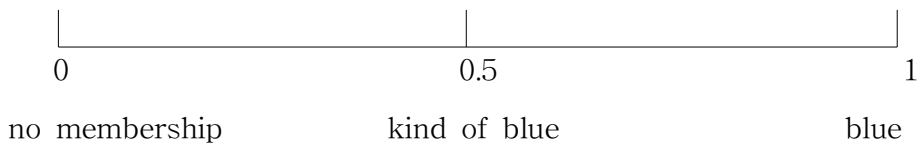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may, a little 과 같은 표현은 발화의 주장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책어 연구의 시조라 할 수 있는 Zadeh(1965)와 Weinreich(1966)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Hedge”나 “Hedg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방책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구자이며 방책어의 개념적 기틀이 되므로 언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수학적 모델로 사용한 Zadeh(1965)의 퍼지 세트(Fuzzy Sets)이라는 이

론은 집단내 원소와 집단 사이의 귀속 관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blue sky”이라는 것이 푸른 물체의 집단에 속하는가 라는 전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yes” 나 “no”로 대답할 수 있지만, 퍼지 세트에서 “blue sky”이라는 것은 “degree of blueness”를 가르키는 값(value)을 말하는 것이다.

Zadeh는 한 집단의 상관 관계의 값(value)을 0과 1 사이로 나타내었는데, 만약 그 값이 0 이라면,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non zero” ( 0 이 아닌 경우)인 0.5 이하인 경우, 그 집단의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지만, 아주 많은 속성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이 0.5보다 큰 경우 분명히 그 집단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값이 1“에 더 가까운 경우 그 집단 속성의 실체에 더 가까운 것이다. 즉, “blue”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을 때, 0.5는 교차점(crossover point)이 된다.

### [ Degree of Blueness ]



Lakoff(1972)의 퍼지 논리(fuzzy logic)는 위에서 언급한 Zadeh의 퍼지 세트를 기본으로 하여, 처음으로 방책어(hedge)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방책어를 단지 집단과 원소간의 소속 관계를 밝혀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화에 대한 화자의 책임 여부로 확장하여 방책어의 개념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방책어는 “whose job it is to make things fuzzier or less fuzzy” (발화를 더 모호하게 하

거나 덜 모호하게 만드는 것)로 정의하였다.

즉,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거나 어떤 질문에 대답할 때 방책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발화된 문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장의 완고함을 경감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흐린다는 의미이다.

- (3) a. Tomatoes are fruits.
- b. I think tomatoes are fruits.
- c. Tomatoes are sort of fruits.

위의 (3a)에서는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단언하는 것이나, (3b)의 경우, I think는 그 주장의 강도를 (3a)보다는 감소시키면서, 화자가 명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청자가 이 발화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c)의 경우, sort of는 토마토가 한편으로는 과일 분류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발화를 만듦으로서,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sort of와 같은 표현은 문장의 의미를 흐리게 만들면서 발화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이러한 방책어를 Lakoff(1973)는 전형적으로 서술어(predicates)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위의 예문 (3b)와 (3c)는 각각 I think와 sort of를 사용하여, (3a)의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단언적인 진술과 달리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책어는 진술을 불분명하게 만듦으로써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이나 반대에 대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 2.1.2 의미론과 화용론에서의 방책어

방책어 연구는 의미론적(semantic) 접근에서 점차 확대 되어 오늘날의 화용론(pragmatics)으로까지 발전해 왔다. 여기서 먼저 초기의 의미론적 접근에서 방책어에 대해 살펴본 후 화용론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초기의 방책어 연구자들은, Lakoff(1973)처럼 의미론적 현상을 주로 다루었다. 어떤 것을 의미적으로 더 모호하게 하는 주된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방책어에 접근했으나, 사물을 어떻게 개념화 하는가에 따라 방책어의 사용이 달라지므로 의미론적 방책어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Kay(1984)는 loosely speaking과 strictly speaking 과 같은 표현이 언어의 도식화나 민속 이론<sup>4)</sup>(folk theory)에 기반하고 있으며, 단어의 강도와 느낌으로 인해 단어가 대상(objects)과 내재된 조화를 이루며, 단어의 의미는 언어의 규칙에 따라 결합된다고 보았다.

- (4) a. Technically, that's a rodent.  
b. \*Technically, that's a varmint.
  
- (5) a. Technically, that's an insect.  
b. \*Technically, that's a bug.

그는 일반인들이 단순히 Technically, a whale is a mammal 이라고 말할 때,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래가 포유류라고 정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rodent 와 insect 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의 용어로 전문적 용어이지만, varmint 와 bug는 전문적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다.

---

4) 민속 이론(folk theory)란 사람들이 과학적 이론과 관계없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6) a. Richard Nixon is technically a Quaker. (true)

b. Strictly speaking, Richard Nixon is a Quaker. (false)

Kay 는 (6)의 예를 들면서, Nixon 이 정의적인 면에서 Quaker 일 수 있으나, Quaker의 종교적, 도덕적 측면의 특징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technically는 정의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6a)는 진실이지만, strictly speaking은 정의적인 기준과 제1의 속성(primary property)를 모두 가져야 하는데, Nixon이 Quaker의 종교적, 도덕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6b)는 거짓이 된다.

(7) .a. Sam is a regular fish.

b. Loosely speaking, Sam is a fish.

(7b)의 경우 Sam이 물고기 종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제2의 속성(secondary property)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물고기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갖는다는 이상한 표현이 된다. 하지만, (7a)의 경우 물고기 종류와 관계 없이, Sam 이 수영을 잘하고, 집에서도 수영을 자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방책어의 의미론적 접근은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의미상 구분을 하여 대화에서 정확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의미의 충돌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영어 교육에서 의사 소통적 기능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담화 분석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담화분석을 통해 제2 언어로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이해도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방책어 연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용론적 접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Holmes (1982)는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인지적 양태(epistemic modality)<sup>5)</sup> 표현을 언급하였고, 특정 언어 형태로 인해 확실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이를 해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제2 언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지적 양태 표현은 간접화행의 일부이며, 간접화행은 주로 정중성(politeness)과 깊은 연관이 있다. Brown & Levinson(1987)의 저서“Politeness”에서 정중성이 문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보편적 언어 현상이며 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 및 언어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는 대화 참여자 간의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고,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중성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을 타인에게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구, 즉 공적 자아상(public self image)인 “face”(체면)와 관련 있으며, Brown & Levinson은 공손한 표현이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막아주는 완화적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책어는 체면 유지 전략(face saving strategy)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

또한 Brown & Levinson(1987)은 정중성 이론(politeness theory)에서 소극적 정중성(negative politeness)을 주된 원리로 삼았으며, 화자의 프라이버시와 행동의 자유에 위배되는 체면 손상 행위(face threatening act)를 방책어가 보상해준다고 보았다.

---

5) a. John maybe at home.

b. John is at home.

b)는 John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반면, 예문 a.는 발화 내용에 대해 화자가 취하는 외부적 태도로서, 개연성(probability)이나 예측성(predictability)를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Halliday,1970)

(8) a. Open the window!

b. I wonder if you could open the window.

(8a)의 경우 화자는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담하고 수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에 반해 (8b)의 경우 우회적인 표현으로 I wonder와 if절을 함께 사용하여 간접적인 요청을 함으로써 청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화자의 요청이 거절당했을 경우에 화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며, 체면도 함께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방책어는 불변화사(particles), 어휘, 절 단위 등의 방책어 형태로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의 화용적 표지어(pragmatic markers)<sup>6)</sup>로서 화자가 발화의 직접성, 권위나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담화적 측면에서 볼 때, 방책어는 대화에서 윤활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고, 부드러운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2 방책어의 분류

Quirk et al.(1972)은 정도 부사(adverbs of degree)를 강화어(intensifier)라고 불렀으며, 이를 강조어(emphasizer), 증가어(amplifier), 그리고 감소어(downtoner)로 구분 지었다. Hübler(1981)는 이 중에서 절

---

6) Laurel J. Brinton(1996)의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에서 화용적 표지어(pragmatic marker)를 discourse markers(담화표지어)로부터 구분하였다. 담화 표지어(Discourse markers)는 well, I know, you know, you see 등의 표현을 가르키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며, 화용적 표지어(pragmatic markers)는 표지어(marker)를 단수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으며, actually 처럼 단일어로 구성되고, 화용적, 기능적 요인으로 인해 화용적(pragmatic)이라는 말을 붙였다. Brinton 에 따르면, 방책어(hedge)는 화용적 표지어(pragmatic marker)의 개념과 관련된다.

제된 표현(understatement)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감소어(downtoner)에 관심을 갖고, 축소되는 효과를 가진 정도 부사를 약화어(detensifier)로 불렀으며, 증가어(amplifier)와 강조어(emphasizer)를 강화어(intensifier)의 하위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제시한 방책어 가운데서도 의미의 강도를 감소시키는(downtoning) 약화어(detensifier)만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 2.2.1 근접어(Approximator)

Prince, Frader, and Bosk(1982)는 어떤 방책어의 경우,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이를 근접어(Approximator)라고 불렀다. 이것은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의 진실을 밝히고, 또한 표현된 명제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방책어는 정확한 측정에 연연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almost, basically, nearly, practically, technically, virtually 등이 근접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들은 이러한 근접어를 더 세부적으로 적응어(adaptor)와 대략어(rounder)로 나누었다. Prince 등(1982)은 적응어를 비전형적상황(non-prototypical situation)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는데, 다시 말해 이것은 Lakoff(1973)가 제시한 분류(category)와 멤버간의 상관 관계에서 볼 때, 그 분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적응어에 속하는 어휘는 sort of, somewhat, quite, often, occasionally, in a way, somehow 등이 있다.

(9) a. He sort of sat in the corner.

예문 9에 나타난 sort of 는 “그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다.”는 상황을 완전히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석 자리쯤으로 여길 만한 곳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온전한 ‘구석자리’ 라는 것이 아니라 ‘구석자리’ 라고 여길 만한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sort of, somewhat’ 등의 표현을 적응어라 부르는 것이다.

대략어(rounder)의 경우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것으로, 적응어와 마찬가지로 수량, 정도, 빈도, 시간 등에 대해 주의 기울이기나 불확실한 입장을 나타내게 된다.

(10) a. I walked around the park for about an hour.

위의 예문 ‘나는 약 한 시간동안 공원 주위를 걸었다’ 는 정확한 시간의 전달보다는 불확실한 시간적 표현을 전달하고자 사용되었다. about은 여기에서 방책어로서 ‘대략’의 의미로 해석되며, 정확히 한 시간은 아니지만 한 시간에 가까운 근사치를 의미하고 시간에 대한 불확실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략어는 about 외에도 around, roughly, approximately 등이 있다.

### 2.2.2 방패어(Shield)

Prince et al.(1982)는 또 다른 형태의 방책어로서 명제의 내용과 화자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방패어(Shield) 라고 불렀으며, 화자

가 확신이 없거나, 자신이 믿는 것이 불확실할 경우에 이러한 방책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명제의 진실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책임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화용론에 영향을 미치며, 진실 조건에 영향 받지 않는다.

이들 방패어도 근접어와 마찬가지로 개연적 방패어(Plausibility shields)와 귀인적 방패어(Attribution shields)로 구분하였다.

개연적 방패어는 화자의 어떤 믿음을 임시적으로 부여하고, 특정 가능성을 표현하는 양태적 동사(modal verbs)인 to appear, to seem과 같은 준 조동사(semi-auxiliaries),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인 probably, likely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인지적 동사(epistemic verbs)인 to suggest, to speculate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Holiday(1985)의 언어 모델에 따르면, 방책어는 양태 표현(an expression of modality)이며, 이 양태(modality)는 그 의미와 기능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interpersonal)를 나타내고, 명제의 지위나 타당성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명제의 진리나 신뢰에 대한 개인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가 방책어 형태를 취한다면, 양태표현은 청자나 독자 스스로 명제를 판단할 여지가 있음을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귀인적 방패어는 어떤 지식이나 믿음을 가지고 발화하는 것으로, 명제의 진리치는 변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정도를 according to, Mom says that과 같이 타인이나 어떤 정보에 빚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 (11) a. He is probably responsible for the broken vase.  
b. It seems that he is responsible for the broken vase.  
c. According to Susan, he is responsible for the broken vase.

위의 예문에서 (11a)와 (11b)는 각각 probable, seems 라는 개연적 방패어를 사용하여 “그가 깨진 화병에 책임이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1c)의 경우 according to Susan을 사용하여 발화의 내용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 기인한 것으로 발화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나 (11)의 방패어 모두는 “그가 깨진 화병에 책임 있다”는 진실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2.3 인지적 양태(Epistemic Modality)

Halliday(1970)는 양태(modality)가 개연성(probability) 및 가능성(possibility)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으나, Simpson(1990)은 양태가 명제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의견을 폭넓게 아우른다고 보았다. Coates(1983)등은 양태는 루트(root)<sup>7)</sup>과 인지(epistemic)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이 중에서도 인지적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자신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방패어와 연관성이 깊다. 인지적 양태는 화자의 발화에 대해 화자가 갖는 자신감 또는 자신감 부족의 가능성에 관한 가정이나 평가로 여겨진다. Lyons(1997)은 명제의 진실에 화자가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발화로 정의 하였다. Perkins(1983)는 인지적 양태를 어휘적(lexical) 그리고 구조적(structural) 장치로 나누고, 구조적 장치는 수동형의 구조를 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휘적 장치는 조동사(modal auxiliaries: may, could), 형용사(possible), 부사(usually), 명사적 표현(possibility)과 인지적 주요동사(suggest)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

7) 루트(root or non-epistemic)양태는 허가(permission), 의무(obligation), 필요성(necessity) 같은 표현을 말한다.(Coates)

“I may be a few minutes late.” 에서 늦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정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보다 일찍 도착할 수도 있기에 정확한 시간 표현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또한 I believe, to our knowledge, It is our view that 등은 화자의 개인적 의구심과 화자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지적 양태는 작가나 화자가 명제의 진실을 주장하는데 있어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며, 인지적 양태 표현은 문장을 더 모호하게 할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Hyland(1998)는 방책어의 핵심은 작가(writer) 또는 화자(speaker)의 주장에 대한 독자나 청자의 판단이며, 발화로 인한 대화자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효력 발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인지적 양태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방책어와 인지적 양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방책어는 인지적 양태이기도 하며, 동시에 인지적 양태를 포함하기도 한다.

인지적 양태는 대개 양태 조동사(e.g, must, may), 양태 부사(e.g., probably, perhaps), 양태 형용사(e.g., probable, possible), 양태 명사(e.g., indication, suggestion)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지적 양태 가운데서도 어휘 동사(seem, suppose, assume)를 다룰 것이다.

## 2.3 선행연구

### 2.3.1 의미론적 방책어 연구

1970년대 초 퍼지 논리(fuzzy logic)의 개념에서 출발한 방책어에 관한 연구는 화용론과 담화 분석으로 까지 확대 되어 근본 개념에서 많이 확장되었다. 앞서 밝혔듯이 초기의 방책어는 의미론적 연구 중심이었고, Lakoff(1975)는 이러한 의미론적 연구의 중심에 있는 연구자였다. 그는 어떤 분류의 종속 관계 정도를 진실의 정도로 보았으며, 이것은 방책어 연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2) a. A robin is a bird. (true)  
b. A chicken is a bird. (less true than a)  
c. A penguin is a bird. (less true than b)  
d. A bat is a bird. (false, or at least very far from true)  
e. A cow is a bird. (absolutely false)

Lakoff 는 이와 같이 진실의 정도(degree of truth)를 사용하여 어떤 분류의 구성 요소가 그 분류(category)에 명확(certainty)하거나 불명확(uncertainty)하게 소속 되는가를 나타내었다.

어떤 분류의 원형적 특징을 가진 것에는 sort of 나 kind of 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여 사용할 수 없다. 즉, (12a) 의 경우 robin 은 새의 원형적 특징을 가지므로 진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불명확한 sort of나 kind of 는 어울지 않는다. 그러나 (12b)와 (12c)는 (12a)보다는 진실의 정도가 떨어진다. 이처럼 그 분류가 애매모호한 경우에 sort of 를 사용 한다

면, 분류의 애매함(fuzziness)을 나타낼 수 있으며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닭과 펭귄은 robin 처럼 새의 원형적 특징을 골고루 갖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새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d)의 박쥐는 새처럼 날 수 있지만, 새처럼 날개가 깃털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부로 되어있으며, 알이 아니라 새끼로 태어난다는 점에서 새의 전형적인 특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12d) 와 (12e) 의 박쥐와 소는 “새”라는 속성을 전혀 갖지 않으므로 거짓일 수밖에 없다.

위의 예문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동물의 차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요구된다. 구어체나 문어체에서 청자나 독자는 발화되거나 쓰여진 글에서 의미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휘-문법적 배경지식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맥의 관계에 대한 담화적 배경 지식이 요구된다. 문장에서 방책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경 지식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청자가 발화에서 주어진 정보를 헤아릴 수 있고, 인간의 근본적인 인지적 측면으로 알려진 분류(categorization)의 원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Channell, 1994: 199)

### 2.3.2 사회 언어학적 방책어 연구

의미론적 개념에서 출발한 방책어는 화용론에서부터 사회언어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흥미를 끄는 다양한 연구가 등장 하였다. Dines(1980)와 Dubois(1993)는 사회 언어학적으로 사회 계층, 직업, 상호작용 형태, 나이, 성별, 인종 등의 사회적 요소에 따라 담화적 불변화사(discourse particles)의 사용이 달라지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Bernstein(1971)은 사회

언어학 연구에서 "I think"와 같은 자아 중심적(ego-centric)표현은 중산층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 계급에서는 사회 중심적(socio-centric)인 표현인 "you know"나 "isn't it" 이 더 자주 사용된다는 것을 밝혔다.

Salager-Meyer(2000)는 방책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느 한 시대나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어적 행동을 유발하는 학습된 언어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만약 담화 공동체가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어떤 (학문적, 전문적)문화로 간주 된다면, 방책어는 그 담화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관습적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구성원 간에 언어적 행동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방책어는 담화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어떤 제한 안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Mauranen (1997)은 방책어를 사용하는 두가지 동기를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방책어가 어떤 담화 장르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면 특정 담화 공동체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기대 된 것은 의식의 일부이므로 거시적 수준의 동기(macro-level motivation)가 된다. 그러나 더 개인적 수준인 근시적 동기(micro-level motivation)는 체면을 살리고, 재치를 보이거나 중용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 된다.

또한 Channell(1994)은 그녀의 저서 "vague language"에서 방책어를 포함한 애매한 언어의 목적을 연구하면서, 문어체나 구어체에서 방책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알맞은 양의 정보 전달
- 신중한 정보 보류

-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말하기
- 특정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 비격식적 분위기 만들기
- 불확실성 표현하기
-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어떤 것의 중요성을 경감 시키기
- 정중성, 특히 존경 표현하기
- 실수하는 것에서 자신 보호하기

방책어의 사용은 사회 계층, 직업, 성별, 인종, 담화 공동체 등의 사회적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담화 공동체의 기대는 언제, 어떻게, 왜 방책어를 말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2.3.3 담화 전략적 방책어 연구

Minna-Riitta Luukka와 Raija Markkanen(1997)은 방책어의 한 형태로서 비인칭(impersonalization)에 관해 방책어의 담화적 전략은 단어를 모호하게 하거나, 발화를 부드럽게 또는 경감시키는 것 이상이며, 여기에 비인칭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1인칭 대명사 대신 수동형을 사용하는 것인데, “I claim that the Earth is flat” 대신에 “It is claimed that the Earth is flat.” 이라고 발화하여 화자가 말 한 것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다.

비인칭은 두 개의 대조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는 있을 수 있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전달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체면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자를 비인칭화하여 수신인(addressee)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수신인의 체면을 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As you can see on the handout", 보다는 "As can be seen on the handout."을 사용하는 것이다. "X suggests that" 대신에 "It is often suggested that"을 사용하여 제 3자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므로, 제 3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화자 자신의 주장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려는 욕구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비인칭은 화자의 메시지를 청중에게 더 잘 수용되도록 하는 방법이며,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이는 방법이 된다. 이러한 비인칭 방책어는 구어나 문어 담화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객관성에 기여하는 비인칭 방책어를 구어체에서보다 문어체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비인칭 방책어가 화자나 작가가 만든 전략적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명시적, 암시적으로 자신, 청자, 또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선택권을 가지며, 화자나 작가가 더 직접적이고 개방적으로 명백한 언급을 사용할 때는, 직접적으로 정보의 근원을 언급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암시적 언급을 선택할 때, 저자나 화자는 간접적이고, 정보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책임을 피하게 된다.

명시적 인칭 언급을 회피하는 것은 방책어 전략을 취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구어체보다 문어체에서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텍스트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사람보다는 주제가 더 중요하고, 중도(modesty)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대화보다는 문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문어체의 경우에 저자는 자신의 관점이나 이전의 연구 결과를 제시 할 때, "As I have shown"이라고 말하지 않고, "As is shown by X"라고 나타낸다는 것이다. 대화에서 "You" 라고 명시적으로 청자에게 발화하는 것은 그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급하

기 쉬운 것이지만, 반면에 문어에서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시적 언급을 피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핀란드어와 영어의 구어 및 문어의 문화적 기준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며, 영어 텍스트가 핀란드어 텍스트보다 인칭 언급에서 약간 더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구어의 경우 영어나 핀란드어 모두 명시적인 언급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어에서는 이와 반대로 모호한 인칭의 사용에서 영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4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

코퍼스는 ‘말뭉치’, ‘말모듬’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사용된 구어 또는 문어로 된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Sinclair (1997)는 코퍼스 언어학을 코퍼스 기반 조사를 통한 언어 연구로 정의 하였으며, 김형주는 다음과 같이 코퍼스의 유래에 대해 밝히고 있다.

말뭉치 언어학은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1950년대 등장한 미국의 실증주의-행동주의적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실제 언어자료를 언어학의 일차적인 설명 대상으로 삼아 출발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말뭉치 언어학의 출발은 1959년 Durham 대학, 1960년 런던 대학에서 영어 용법 말뭉치 조사 (Survey of English Usage Corpus)라는 이름으로 영어의 실제 쓰임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비롯되며, 말뭉치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브라운 대학의 프랜시스(W. N. Francis)와 쿠체라(Kucera)가 20종에 걸친 총 500편의 글에서 2000 마디

씩 뽑아 총 100만 마디의 말뭉치를 구축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언어학사전 : 김형주의 글말닷컴)

코퍼스는 일상 대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교실에서 대화, 소설, 신문 기사, 잡지, 토크쇼 등의 대화나 글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상에서 처리되는 전자화된 텍스트로 구성된다. 코퍼스를 이용한 연구는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폭넓은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어휘와 어휘의 형태, 통사와 통사의 형태, 개인이 쓰는 특정 언어(idiolects), 담화 집단 등을 보여주어 언어 구조와 사용을 분석하는데 다양하게 활용된다.

Tognini-Bonelli(2001)은 Corpus(말뭉치) 언어학은 방법론적, 이론적 혁신을 수반하며, 이 두가지 역할을 이해하고 영어 교수의 새로운 길을 설명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관찰할 수 있는 언어적 사실에 대한 설명은 전통적인 기술적(descriptive) 분류로 확인하고 관찰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 단위의 정의가 될 것이며,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교실활동에 중점을 둘 때 언어에서 그러한 단위의 정의와 평가는 교수 과정에 진정한 의사소통적 측면을 넓히고, 학생과 교수 모두 언어 사용 규칙을 생생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Firthian<sup>8)</sup> 구조 이론에서는 의미에 대한 문맥적 이론이 교실에 적용될 때 코퍼스적 학습 활동은 귀납적 형태를 띠며(upward moving model), 또한 자주 나타나는 언어(collocates)를 발견하여, 문법적 위치, 단어 계급, 의미적 유사성 등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변수로 분류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 분류는 반복

---

8) Firth라는 영국의 언어학자 이름에서 따온 영국식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관찰 대상은 언어체계가 아니라, 확장된 사회 과정의 일부로 언어 사용이며, 이러한 사회 과정은 각 언어 표현이 상황적, 언어적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심론적 접근과 달리, 의미는 상황의 맥락에서 복잡한 관계로 이해된다.

된 언어 사례의 양상을 요약하는 일반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증거에서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 형성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교실 환경에서 코퍼스 언어학의 방법론은 학습 초기에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언어 연구인 귀납적(bottom up)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레벨의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이론적 장치 없이 언어적 질의를 형성한 학생들은 수용된 지식이라기 보다 자신들의 관찰에 기초해서 자신의 가설을 진행하여 매우 빨리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퍼스를 활용한 언어 교수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이론, 기술, 방법론 모두 함께 합쳐진 영역이고, 교실 활동 측면에서 학습자가 무엇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모순을 알아보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분야이다. 즉, 코퍼스의 역할이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와 어떻게 잘 획득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언어 수업에서 코퍼스가 다양한 교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코퍼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EFL 환경에서 언어 학습이 진정성(authentic)있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코퍼스의 예문은 학생들이 실제 일상의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마주치게 되는 문장을 접하게 되므로 언어학습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교수 자료로서 문법이나 단어의 다양한 사용 용례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더 풍부한 언어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며, 텍스트와 문법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생각지 못한 언어 사용을 가져올 것이다.

## 2.5 성별 언어(Gender Language)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들이 남성과 여성의 언어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John Gray(1992)의 저서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에서, 그는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과 감정적 욕구를 이해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만큼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큰 차이를 보이고, 그 언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여자는 남성보다 더 대인관계(interpersonal)에 연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상과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여성은 소속, 관계, 교감, 공감, 상호 의존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남성은 경쟁, 서열, 독립, 개인, 분리, 지위와 관련이 깊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차이에 관한 중요한 이론은 사회학자인 Deborah Tannen(1991)이 그녀의 저서 "You Just Don't Understand"에서 제시한 차이 이론(difference theory)과 또 다른 사회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지배 이론(dominance theory)이다. 차이 이론에 따르면, 같은 그룹 내의 남자와 여자는 다르거나 구분된 문화계에서 살아가고, 그 결과 서로 다른 대화 방식을 가진다. 이 이론은 이(二) 문화 이론(two-culture theory)으로 불리기도 하며, 남자와 여자는 같은 환경에서 살지라도, 마치 다른 환경과 문화에 속한 것처럼 사회와 다른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결국, 성별간(cross-gender)대화는 문화간 또는 이중 문화(bi-cultural)적 대화가 된다는 것이다. 지배 이론은 남자와 여자는 힘과 지위가 동등하지 않은 문화적, 언어적 세계에서 사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위 권력기반 이론

(power-based theory)이라고도 하며, 남성의 지배성과 성별 구분에 중점을 둔 이론이다.

“Pretending that women and men are the same hurts women, because the ways that they are treated are based on the norms for men. It also hurts men, with good intentions, speak to women as they would to men, and are nonplussed when their words don't work as they expected, or even spark resentment and anger”

- Deborah Tannen (1990)

Tannen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언어적 차이는 그들이 어릴 적부터 여자아이, 남자아이 각각 따로 놀이 그룹을 형성한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여자 아이들은 비밀을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한 대화를 구성해왔으며, 반대로 남자 아이들은 놀이에서 경쟁적 대화 스타일을 발달시켜 자신의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개인적 관계 대화(rapport talk)를 하고, 남성은 공적인 보고식 대화(report talk)을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대화 스타일을 자기 방어적인 것으로 본 Lakoff(1975)와 달리 Tannen은 성적인 언어 차이(gender language gap)의 해결책은 다른 성의 대화 스타일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Mary Crawford(1995)는 남성과 여성의 대화 스타일의 차이를 남성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illiam O'barr 과 Bowman Atkins(1980)은 North Carolina 대법원

재판에서 남성과 여성의 증언 150시간을 기록하고, 'women's language', 즉 방책어(kind of, I guess, perhaps), 극존대말 표현(super-polite forms, e.g. I'd really appreciate it if ), 부가의문문(tag question), 강화어(very, so) 와 서술문에서 의문형의 억양과 같은 특징적 담화 형태를 관찰하였다. "women's language"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주로 주부이며,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 여성들은 이러한 언어를 자주 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하게 "women's language"를 꽤 자주 사용하는 여성들은 부하직원, 하위직업, 또는 비고용 상태인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O'barr 와 Atkins 는 "women's language"가 정보다는 사회적 힘과 더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언어와 성(language and gender) 에 관한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Robin Lakoff(1975)에 의하면 'powerless language'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성이 감정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I like him so much"에서 증강어(amplifier)인 "so"를 사용하고, 또한 여성들은 증폭기제를 사용할 때 방책어(I think, I guess, etc)를 자주 수반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Lakoff는 여성이 의사 표현을 약화시키거나 부드럽게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가 의문문, 서술문에서 억양을 올리거나, 다양한 방책어, 증강어(booster or amplifier)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다. 'Powerless' 는 약자의 입장이나 위치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고, "여성처럼" 말하는 것을 구별하는 "불확실하게 말하기"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거나 발언에 대한 확고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자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만드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못한 'powerless' 언어를 사용하는 여성은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Lakoff(1975)는 그녀의 저서 "Language and Woman's Place"에서 남

성과 여성의 사회적 불공평과 언어에서 불공평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녀는 여성적 언어(Women's language)라는 말을 사용하여 언어와 성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적 언어 형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책어(Hedges)</li> <li>▪ 극도로 정중한 표현</li> <li>▪ 부가의문문</li> <li>▪ 이태리체로 말하기</li> <li>▪ 무의미한 형용사</li> <li>▪ 고도의 정확한 문법과 발음</li> <li>▪ 유머감각 부족</li> <li>▪ 직접적 인용</li> <li>▪ 특수 어휘</li> <li>▪ 서술문에서 의문형 억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rt of; kind of, I guess</li> <li>- would you please.. I'd really appreciate it if</li> <li>- You'll drop by at noon, won't you?</li> <li>- emphatic so and very, intonational language</li> <li>- charming, sweet, adorable;</li> <li>- poor at telling jokes;</li> <li>- "Sarah said that he said...";</li> <li>- specialised colour terms like 'Dove grey';</li> </ul>
---	---

여러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강화어(intensifier)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강화어가 남성적 여성적으로 나뉘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Bradac et al.(1995)는 여성이 강화어(so, really)를 더 흔히 사용하는 것에 반해, 남성은 pretty나 completely와 같은 단어를 덜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 언어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감소어(downtoner)에 해당하는 방책어들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교육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 III.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사용한 ICE-GB 는 국제 영어 코퍼스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가운데 영국판이다. ICE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자료 제공을 주된 목표로 1990년에 시작 되었다. 영국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미 등을 포함한 20여개 이상의 센터에서 자국의 영어 코퍼스를 준비하고 있다.

ICE-GB 는 1990년대부터 구어체와 문어체로 된 100만 단어의 영국 영어로 구성 되어 있으며, ICECUP 3.1(ICE Corpus Utility Program) 을 사용하여 문장의 통사적 구조와 각 단어의 품사 및 문장 성분, 그리고 담화적 기능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코퍼스는 크게 구어체와 문어체, 성별, 학력, 직업, 연령대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담화 내용면에 있어서 구어체의 경우 사적인 대화, 전화, 방송에서 토론, 인터뷰, 비즈니스 거래, 교실 수업, 의회 논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어체는 리포트, 업무 서신(business letter), 사교적 서신(social letter), 비전문적 작문( 학생들의 시험원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3.2 분석 방법

ICECUP 3.1(ICE Corpus Utility Program)을 이용하여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학력자와 대학교 학력자로 구분 하였으

며, 이들을 다시 구어체(spoken)와 문어체(written)로 분리한 후 각각의 방책어 요소를 검색 하였다. 검색하여 나온 결과(hits)는 비교 대상간의 전체 단어 수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100만 단위를 모든 방책어의 검색 결과에 적용 한 후 각각의 빈도수를 구하였다.

또한 방책어를 어휘 동사(lexical verbs), 개연성(plausibility), 적응어(adaptor), 대략어(rounder), 주관성(subjectivity)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방책어 어휘에 대한 검색 결과(hits) 및 빈도수를 표시 하였다.

### 3.3 분석 기준

앞서 살펴본 방책어의 분류에 바탕을 두고 방책어를 5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어휘동사(seem, suppose, assume), 둘째 개연성(probably, possibly, perhaps, presumably, maybe, 셋째 적응어(sort of, kind of, in a way, to some extent, somewhat, somehow, a little bit, a bit), 넷째 대략어(about, around, approximately, roughly), 다섯째 주관성(I think, I believe, I guess, I wonder, as far as I know, in my opinion, in my view)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방책어를 성별에 따른 분석, 교육 정도에 따른 분석, 남녀의 교육 정도에 따른 분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3.3.1 성별에 따른 분석

Holmes(1990) 는 방책어의 기능을 정의적(affective), 인지적(epistemic)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려는 화자의 욕구를 정의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또한 특정 진술에 대한 타당성에

관해 화자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자 할 경우, 이를 인지적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성별과 의사소통 사이의 관계를 명시하여, 여성은 적극적 정중성(positive politeness)의 전략으로 방책어를 주로 사용하고, 'sort of'를 감정적 기능을 채우는데 사용한다고 하였다. 남성의 경우 'sort of'를 망설임이나 불확실성의 정도를 드러내고자 인지적 성향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그녀의 연구는 'sort of, you know'와 같이 일부 표현에 있어서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서, 다른 방책어의 경우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남성과 여성의 방책어 사용 목적이나 그것의 기능에 있어서 일반화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방책어가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 3.3.2 교육 정도에 따른 분석

방책어의 사회 언어학적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 직업, 나이, 성별, 인종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사용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학력의 차이에 나타나는 언어 형태를 분석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더군다나 학력 간의 방책어 사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학력자와 대학 학력자간의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알아보고,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각각 선호되는 방책어 또한 분석해 보았다.

### 3.3.3 남녀의 교육 정도에 따른 분석

남성과 여성을 각각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교육의 정도에 따라 성별로 나타나는 방책어의 빈도가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여성 고등학교, 여성 대학교, 남성 고등학교, 남성 대학교로 나누어 방책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알아보고, 어떤 방책어를 어떤 그룹이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IV. 방책어 분석 결과

### 4.1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 사용 비교

서론에서 밝힌바, 방책어는 여성적 언어 형태 가운데 하나이며,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 사용이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구어체와 문어체로 구분하여,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의 사용에서 차이점을 알아 볼 것이다.

< 표 1 > 남자와 여자의 코퍼스(Spoken Corpus of Female & Male)<sup>9)</sup>

	여 성		남 성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화자수	344	233	823	263
문장수	21,339	7,469	38,252	14,603
단어수	181,631	103,193	451,055	228,877

남성과 여성의 코퍼스는 위의 <표1>에서 보듯이 화자수와 단어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아래 표와 같이 1,000,000 단위로 환산하여 그 값을 괄호로 표시하였으며, ICE-GB 상에 나타나는 단어의 검색 결과(hits)도 함께 병기하도록 하였다.

9) ICE-GB 상에서 어떤 특정 단어를 검색해서 나온 결과는 남성/여성으로 구분하여 검색한 결과의 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the"를 검색한 결과가 100이라면, 남성으로 구분한 결과는 55, 여성으로 구분한 결과는 40으로 나타나 합이 95가 되므로 반드시 100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그러므로 남/여 또는 고등/대학교 로 구분한 결과의 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 4.1.1 여성과 남성의 어휘동사 방책어

< 표 2 >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의 어휘 동사<sup>10)</sup> 사용 빈도

	여 성		남 성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seem	44 (242)	41 (397)	133 (294)	91 (398)
suppose	71 (391)	15 (145)	178 (395)	11 (48)
assume	5(28)	4 (39)	16 (35)	15 (66)

어휘 동사 ‘seem’은 외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방책어로서,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개연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suppose’는 어떤 기대나 예상에 따른 가능성을 나타내는 방책어로 사용되며, ‘assume’은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추정하는 방책어이다.

우선 여성의 방책어 어휘 동사를 살펴보면, 여성은 구어체에서 이들 어휘 동사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문어체에서는 조금씩 사용이 줄어들지만, 특히 suppose의 경우 문어체에서는 크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들 어휘 동사를 구어체에서 더 많이 사용하며, 문어체에서 seem과 suppose의 사용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빈도가 높게 사용된 것은 문어체에서 사용된 suppose이며, 나머지는 남성이 더 자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과 남

10) 연구자들에 따라서 어휘동사(lexical verbs)의 범주에 “appear, suggest, propose, think, believe”등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think 나 believe”는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달리 구분하였으며 “propose, suggest, etc”등은 ICE-GB 상에서 화자의 불확실성이나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방책어의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성 모두 구어체에서 suppose를 빈도 있게 사용한 반면, 문어체에서 여성과 남성은 seem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위의 어휘 동사가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여성이 반드시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선호되는 어휘 동사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1.2 여성과 남성의 개연성 방책어

<표 3>은 개연성 방책어로서, 화자의 주장을 약화시켜 발화된 문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달하고 화자와 발화된 진술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개연성이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남녀 간에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 가를 알아 볼 것이다.

< 표 3 >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의 개연성 사용 빈도

	여 성		남 성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probably	154 (848)	25 (242)	230 (510)	47 (205)
possibly	18 (99)	16 (155)	66 (146)	21 (92)
perhaps	65 (358)	42 (407)	221 (490)	66 (208)
presumably	12 (66)	4 (39)	48 (106)	8 (35)
maybe	72 (396)	18 (174)	94 (208)	15 (66)

'maybe, perhaps, possibly' 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각각 '비격식, 중립적, 격식'으로 정중성과 관련이 있다. 또한 presumably 는 어떤 상황이나 말이 진실일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떤 것이 일어

날 개연성을 있다는 불확실함을 내포하고 있다.

위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사용 빈도 순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은 구어체에서 probably, maybe, perhaps, possibly, presumably 순서로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문어체에서는 perhaps, probably, maybe, possibly, presumably 순서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남성의 경우 구어체에서 probably, perhaps, maybe, possibly, presumably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어체에서는 perhaps, probably, possibly, maybe, presumably 순으로 나타났다.

개연성 방책어의 구어와 문어를 비교해서 볼 때, 여성의 경우 possibly, perhaps 는 문어에서 더 자주 사용하였으며, presumably, maybe는 문어체에서 그 사용이 감소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probably, possibly, perhaps, presumably, maybe 모두 구어에서 더 자주 사용되었으며, 문어체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개연성 방책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개연성을 나타내는 부사의 빈도 순서가 남성과 여성, 구어와 문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1.3 여성과 남성의 적응어 및 대략어 방책어

Prince<sup>11)</sup> (1982)는 근사치어(approximator)를 적응어(adaptor)와 대략어(rounder)로 구분하여 정의 하였다. 이러한 근사치어는 수량, 정도, 빈도, 시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heed)와 어떤 것을 언급하는데 주저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먼저 <표4>의 적응어 방책어를 살펴보도록 한다.

---

11) Prince, E., C. Bosk, and J. Frader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J. di Pietro (ed.). Norwood, N.J.:Ablex. pp. 83-97.

< 표 4 >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의 적응어 사용 빈도

	여 성		남 성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sort of	334 (1839)	2 (19)	344 (763)	4 (17)
kind of	20 (110)	2 (19)	35 (78)	2 (9)
in a way	21 (115)	4 (39)	37 (82)	2 (9)
to some extent	6 (33)	-	15 (33)	6 (26)
somewhat	3 (17)	5 (48)	17 (38)	11 (48)
somehow	8 (44)	5 (48)	35 (78)	7 (31)
a little (bit)	82 (451)	1 (10)	129 (286)	2 (9)
a bit	149 (820)	11 (107)	373 (827)	19 (83)

위의 적응어 중에 kind of와 sort of 는 서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한 것으로, 화자가 자신의 발언과 거리를 두거나 발화를 부드럽거나 정중하 게 표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여성은 구어체에서 sort of 와 a bit을 자주 사용하였으며, 문어체에서 는 적응어의 사용을 가급적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남성의 경우 sort of, a bit, a little bit을 비중있게 사용하였으며, 문어 체에서는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으나 somewhat과 a bit을 문어체에서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a little (bit)과 a bit의 사용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선호도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a little (bit)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a bit 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어체의 경우, 적응어는 구어에서 보다 훨씬 낮은 빈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선호하는 언

어가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적응어는 문어체보다 구어체에서 선호되는 방책어라고 할 수 있다.

< 표 5 >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의 **대략어** 사용 빈도

	여 성		남 성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about	148 (815)	29 (281)	266 (590)	81 (354)
around	1 (6)	51 (494)	15 (33)	26 (114)
approximately	3 (17)	4 (39)	11 (24)	9 (40)
roughly	5 (28)	4 (39)	10 (22)	6 (26)

대략어(rounder)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약, 대략’의 의미를 갖는다. 대략어는 전형적인 방책어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화자의 발화에 불확실성을 드러내어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미리 방지하고, 또한 차후에라도 발화의 수정이 수월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구어체에서 다른 대략어 보다도 about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문어체에서는 그 사용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구어체에서와 달리 around의 사용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어체에서 about의 사용이 월등히 높았으며, 문어체에서는 about, around 순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다.

또한 여성은 문어체에서 around를 더 선호하며, 남성은 about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략어에서도 남성의 방책어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문어체에서 around가 유일하게 남성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1.4 여성과 남성의 주관성 방책어

다음으로 주관성을 드러내는 방책어는 대명사 'I' 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를 사용하여 실현된다. 'I think', 'I guess' 등은 '화자가 의미하는 것은 화자의 개인적 주관적인 것이고, 틀린 의견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달리 생각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된다.

< 표 6 >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의 주관성 사용 빈도

	여 성		남 성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I think	644 (3545)	58 (562)	1171(2596)	63 (275)
I believe	17 (94)	8 (78)	65 (144)	17 (74)
I guess	14 (77)	6 (58)	21 (47)	3 (13)
I wonder	21 (116)	9 (87)	29 (160)	5 (22)
as far as I know	2 (11)	1 (10)	2 (4)	1 (4)
In my opinion	2 (11)	1 (10)	6 (13)	-
In my view	-	-	15 (33)	1 (4)

Nuyts(2001)는 'think, believe, guess' 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think, believe'는 주관성에 기반하여 의미를 제시하지만, 추론적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게다가 'believe'는 어떤 정보를 신뢰한다는 것을, 'think'는 어떤 지식을 갖고 사고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그리고 'guess'의 경우 어떤 것을 추정하여 의미를 제시하기도 하고, 주관성에 기반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성은 구어체에서 I think, I wonder, I believe, I guess 순으로 사용 빈도가 나타났으며, 문어체에서는 확연히 그 사용이 줄어들으나 빈도 순서는 구어체와 마찬가지로이다.

남성은 구어체에서 I think, I believe, I wonder, I guess 순서로 빈도가 나타났으며, 문어체에서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같은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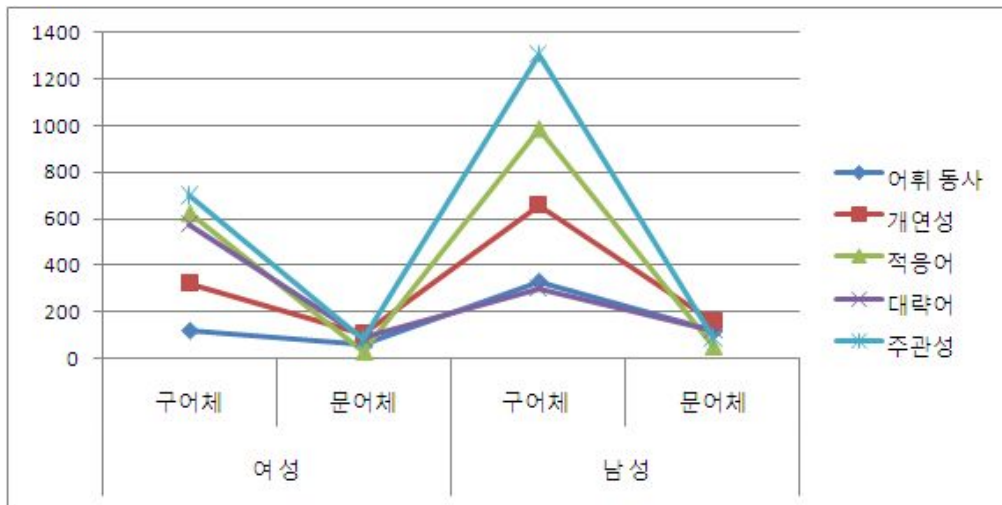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문어체에서 사용 빈도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이 구어와 문어에서 각각 선호하는 주관성 방책어의 빈도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어체에서 남성의 주관성 방책어 사용 빈도가 여성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문어체에서는 여성이 I guess 와 I wonder 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 in my view 의 사용이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성은 문어체에서 in my opinion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과의 반대되는 의견이나 의구심을 가지고 발화를 부드럽거나 정중하게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는 I wonder 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발화를 자신의 지식에 한정지어 확신을 유보하는 as far as I know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같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 4.1.5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별 합계 비교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방책어를 합산하여 각각의 전체 빈도 수를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 표 7 > 여성과 남성의 방책어별 사용 빈도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문어체의 경우 두 집단에서 구어체보다 빈도수가 확연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문어체는 대체로 여성의 문어체 사용빈도보다 조금씩 높게 나타났다. 구어체의 경우 여성의 사용빈도는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대략어의 사용 빈도가 유일하게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략어는 앞에서 밝힌바,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차후에 있을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에 미루어 볼 때 여성의 대략어 사용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실수 방지와 말화에 대한 자기 방어적 기능이 남성보다 강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어휘 동사, 개연성, 적응어, 주관성의 경우 남성의 사용 빈도가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Lakoff가 말한 방책어의 여성적 언어형태의 특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남성 역시 이러한 방책어의 담화 상에서 전략적으로 자주 구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 4.2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 비교

여기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자 간의 방책어 사용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구어체와 문어체의 학력 간 사용 빈도 차이도 함께 알아 보았다.

다음은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화자수와 단어수를 각각 구어체와 문어체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앞서 살펴본 성별간의 방책어 사용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1,000,000만 단위로 환산하여 빈도수로 나타내었다.

< 표 8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방책어 사용 비교

	고등학교		대학교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화자수	248	86	666	343
문장수	12,557	4,718	37,170	13,825
단어수	108,468	65,574	416,701	212,237

### 4.2.1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의 어휘 동사 방책어

< 표 9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어휘동사 사용 비교

	고등학교		대학교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seem	31 (286)	39 (595)	127 (305)	78 (368)
suppose	45 (415)	7 (106)	135 (324)	13 (61)
assume	1 (9)	-	15 (36)	4 (19)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구어체에서 suppose, seem, assume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문어체에서는 seem, suppose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ssume은 문어체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과 마찬가지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의 사용 빈도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의 문어체에서 나타나지 않은 assume의 사용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문어체에서 대학 학력자의 방책어 어휘동사 사용이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2.2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의 개연성 방책어

< 표 10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개연성 사용 비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probably	73 (673)	14 (213)	251 (602)	48 (226)
possibly	13 (120)	12 (183)	56 (134)	19 (90)
perhaps	31 (285)	12 (183)	209 (502)	86 (405)
presumably	7 (65)	3 (46)	47 (113)	8 (38)
maybe	34 (313)	8 (122)	111 (266)	22 (104)

고등학교 학력의 구어체에서 probably, maybe, perhaps, possibly, presumably의 순서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어체에서 probably, possibly/perhaps, maybe, presumably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 학력의 구어체에서는 probably, perhaps, maybe, possibly, presumably 순으로, 문어체에서는 perhaps, probably, maybe, possibly, presumably 순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두 학력 간의 개연성 사용의 순서는 구어와 문어에서 달리 나타나며, 그 사용 빈도에 있어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presumably의 사용은 고등학교 구어체에 비해 대학 학력이 구어체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어체에서 사용 빈도 순서를 볼 때, 각 학력 집단이 선호하는 개연성 방책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문어에서 개연성 방책어 사용 빈도는 대학 학력자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4.2.3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의 적응어 및 대략어 방책어

< 표 11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적응어 사용 비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sort of	174 (1604)	2 (30)	425 (1020)	4 (19)
kind of	23 (212)	-	22 (53)	1 (5)
in a way	10 (92)	-	47 (113)	6 (28)
to some extent	2 (18)	1 (15)	19 (46)	5 (24)
somewhat	2 (18)	4 (61)	17 (41)	12 (57)
somehow	6 (55)	4 (61)	32 (77)	6 (28)
a little (bit)	26 (239)	-	134 (322)	2 (9)
a bit	84 (774)	5 (76)	228 (547)	21 (99)

적응어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력에서도 남녀간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문어체에서 그 사용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단, 'somewhat'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의 문어체에서 사용이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구어체에서 sort of, a bit, a little bit, kind of, in a way, somehow 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학력의 경우 구어체에서는 sort of, a bit, a little bit, in a way, somehow, kind of의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 간의 적응어 사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문어체에서 kind of, in a way, a little bit의 사용을 회피한 것에 비해 대학 학력의 경우 여전히 문어체에서 이들 적응어의 사용은 미미한 정도지만 문어체에서 어느 정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12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대략어** 사용 비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about	89 (821)	9 (137)	253 (607)	73 (344)
around	1 (9)	-	8 (19)	19 (90)
approximately	1 (9)	1 (15)	9 (22)	10 (47)
roughly	-	3 (46)	15 (36)	5 (24)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구어체에서 다른 대략어에 비해 about을 아주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으며, 대학 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bout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 학력의 구어체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나타나지 않는 roughly를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였다.

문어체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에서 around는 사용 되지 않았으며, roughly의 경우 오히려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대학 학력의 경우 문어체에서 around와 approximately의 사용이 구어체에서보다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고등학교 구어체에서는 about을, 대학교는 about과 roughly를 선호하며, 문어체에서는 고등학교가 about 과 roughly 를 그리고 대학교 문어체에서는 about, around, approximately 를 더 다양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2.4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의 주관성 방책어

< 표 13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주관성 사용 비교

	고 등 학 교		대 학 교	
	구어체	문어체	구어체	문어체
I think	403 (3,715)	29 (442)	1159(2,781)	76 (358)
I believe	11 (101)	3 (46)	60 (144)	21 (99)
I guess	9 (83)	1 (15)	21 (50)	8 (38)
I wonder	8 (74)	3 (46)	30 (71)	9 (42)
as far as I know	2 (18)	-	2 (5)	2 (9)
In my opinion	-	1 (15)	5 (12)	-
In my view	1 (9)	-	14 (34)	1 (5)

고등학교 학력의 구어체에서는 I think, I believe, I wonder, as far as I know, In my view 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문어체의 경우 I think, I believe, I wonder, I guess, In my opinion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어체에서 as far as I know, in my view 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 학력의 구어체에서는 I think, I believe, I wonder, I guess, In my view, In my opinion, as far as I know 순으로, 문어체에서는 I think, I believe, I wonder, I guess, as far as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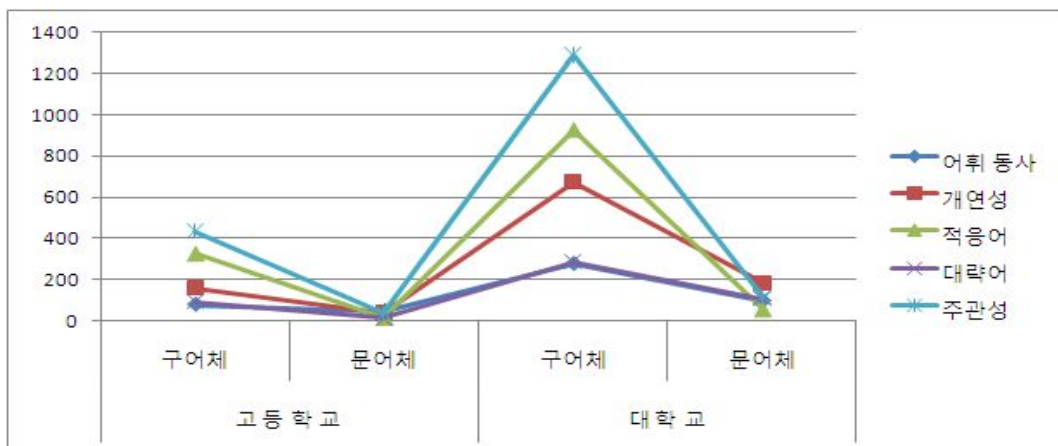
know, in my view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문어체에서 주관성 방책어의 사용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구어체에서 나타나지 않은 in my opinion 은 문어체에서 사용 되었으며, 대학 학력의 문어체에서는 오히려 in my opinion은 사용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관성 방책어 역시 고등학교 대학교 학력 간의 선호도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며,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주관성 방책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2.5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의 방책어별 합계 비교

다음은 위에서 살펴본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각 방책어를 전체 합으로 묶어 비교한 것이다.

< 표 14 >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자의 전체 빈도 비교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방책어의 사용은 고등학교 문어체에서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 학력자가 방책어의 구어체 사용 빈도에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학력의 경우 주관성을 나타내는 방책어 표현을 구어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의견이나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나 판단을 유보하여 청자에게 판단을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정보의 오류를 최소화 하여 실수를 방지하고 차후에 있을 반론의 여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려는 입장을 취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4.3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연구

앞서 살펴본 성별 및 학력 간의 방책어 사용 비교를 각각 성별의 학력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방책어의 사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여성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간의 사용의 차이와 남성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간의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서 성별에 따른 교육 정도에서 방책어 사용의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어체와 문어체를 달리 구분하지 않았으며, 여성과 남성의 학력에 따른 구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

< 표 15 >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분류

	여 성		남 성	
	고 등	대 학	고 등	대 학
화자수	157	345	179	675
문장수	8,542	16,677	8,733	34,210

단어수	82,417	163,740	92,702	467,917
-----	--------	---------	--------	---------

William O'barr 와 Bowman Atkins(1980)는 남성과 여성의 법정 증언을 기록하고 여성적 언어 형태를 사용하는 여성은 대개 주부이며, 교육을 많이 받은 전문직 여성은 이러한 언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여성적 언어는 정보다는 사회적 힘과 더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여기서는 여성의 교육 정도와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를 비교하여 고학력자의 방책어 사용과 일반적으로 사회적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남성의 방책어 사용이 고등학교 학력자와 성별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여성의 방책어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 4.3.1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어휘 동사 방책어

< 표 16 > 여성과 남성의 교육정도에 어휘동사 사용 비교

	여 성		남 성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seem	25	51	42	154
suppose	35	44	17	106
assume	1	6	1	17

여성 대학 학력의 seem 은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두 배 정도 자주 사용 되었으며, suppose, assume 도 역시 대학 학력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대학 학력자의 어

휘 동사 방책어 사용이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성 대학 학력자와 남성 대학 학력자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보다는 남성 대학 학력자의 사용 빈도가 확연히 높았다. 또한 여성 고등학교 학력과 남성 고등학교 학력을 비교해 보면,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의 경우 seem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여성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suppose 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여성 고등학교와 여성 대학교 학력 간의 어휘 동사의 선호도에서 차이와 남성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간의 어휘 동사의 선호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여성 고등학교 학력만 suppose, seem, assume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여성 대학 학력과 남성 고등학교 및 대학 학력의 경우 모두 seem, suppose, assume 순서로 나타났다.

O'barr 와 Akins(1980) 는 여성적 언어 또는 무력한 언어(Powerless language)는 성별이 아닌 사회적 힘에 좌우된다고 보았고, 그들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중에 방책어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어휘 동사 방책어의 경우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고학력자이거나, 사회적 강자로 인식되는 남성이 오히려 이러한 언어를 더 자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을 고려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방책어 사용과 고학력자의 방책어 사용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체면과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화자나 청자의 체면을 고려하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판단의 오류나 정보 오류를 최소화 하여 실수를 방지하려는 욕구가 강할수록 이러한 방책어의 사용이 높다는 것이다.

#### 4.3.2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개연성 방책어

< 표 17 > 여성과 남성의 교육정도에 따른 **개연성** 사용 비교

	여 성		남 성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probably	45	102	42	196
possibly	8	22	17	53
perhaps	18	80	25	115
presumably	7	9	3	46
maybe	28	55	14	78

개연성의 사용에서 여성의 학력 간의 차이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학 학력의 여성보다 사용 빈도가 낮았으며, 남성 역시 고등학교 학력자의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남성 대학 학력자는 여성 대학 학력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빈도로 개연성 방책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probably, presumably, maybe 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성 고등학력과 여성 대학 학력을 비교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 대학 학력자의 개연성 방책어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이 아닌, 교육의 정도에서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개연성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여 발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함으로써 발화에 대한 책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과 동시에 체면 손상에 대한 방어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3.3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적응어 방책어

< 표 18 > 여성과 남성의 교육정도에 따른 적응어 사용 비교

	여 성		남 성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sort of	113	183	63	246
kind of	7	11	16	12
in a way	5	20	5	33
to some extent	0	6	3	18
somewhat	1	7	5	22
somehow	1	10	9	32
a little bit	13	67	13	69
a bit	36	113	53	136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와 대학 학력자의 경우 여성 대학 학력자의 적응어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와 대학 학력자의 경우 역시 남성 대학 학력자의 사용 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와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를 비교해 볼 때,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sort of 를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으며,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kind of, to some extent, somewhat, somehow, a bit을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더 많은 방책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대학 학력자와 남성 대학 학력자를 비교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남성 대학 학력자의 적응어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적응어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 학력자가 더 높은 빈도로 적응어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적응어는 형식을 갖춘

자리에서 발화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며, 상대방과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정중하게 발화를 이어나가도록 윤희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남성이 이런 적응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 4.3.4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대략어 방책어

< 표 19 > 여성과 남성의 교육정도에 따른 대략어 사용 비교

	여 성		남 성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about	51	111	50	214
around	0	2	1	25
approximately	0	5	2	14
roughly	1	7	2	13

위의 대략어의 경우 성별 및 학력을 통틀어서 about의 사용이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의 경우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보다 다양하게 대략어를 구사하는 빈도가 높았다. 여성 대학 학력의 경우 남성 대학 학력보다는 낮은 빈도이나 남성 고등학교 학력보다는 높은 빈도로 대략어를 사용하였다.

남성 대학 학력자의 대략어 사용 빈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성 대학 학력이나 남성 고등학교 학력보다도 높은 것으로서 남성이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의 대략어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략어는 앞에서 살펴 본 적응어와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정보 전달의 오류를 최소화 하고, 실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또한 이러한 연유로 체면 손상을 최소화 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4.3.5 여성과 남성의 교육 정도에 따른 주관성 방책어

< 표 20 > 여성과 남성의 교육정도에 따른 주관성 사용 비교

	여 성		남 성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I think	236	400	180	817
I believe	4	20	13	61
I guess	6	12	4	17
I wonder	9	17	2	23
as far as I know	2	1	0	3
in my opinion	1	1	9	4
in my view	0	0	1	15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에 비해 I think, I guess, I wonder, as far as I know를 더 높은 빈도로 사용 하였으며, 반대로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I believe, in my opinion 을 더 높은 빈도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남성 대학 학력자는 여성 대학 학력자에 비해 더 높은 빈도로 주관성 방책어를 사용 하였다.

성별 및 교육 수준을 교차로 비교했을 때, 남성 고등학교 학력보다 여성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력자가 더 자주 주관성을 나타내는 방책어를 사용하였었다. 다시 말해서, 주관성 방책어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순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남성,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교육 수준이 낮은 여

성, 교육 수준이 낮은 남성으로 나열된다.

이러한 주관성을 나타내는 방책어는 명시적으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전달할 때 정중성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화자 간 정의적인 측면에서 유대감 형성보다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판단하도록 인지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전달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의 전달로 권위와 체면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다.

대화에서 정의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공감이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여성보다는 분리, 지위와 깊은 관련을 갖는 남성이 더 자주 주관성 방책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위와 체면의 손상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V. 결 론

언어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요인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은 언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성별 및 교육 수준으로 구분하여 방책어의 선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혔다. 방책어는 발화의 정중성, 대화자 간의 체면 및 연대감 형성, 정보의 정확성, 격식의 완화 등에 중요한 정의적, 인지적 역할을 담당한다.

성별 및 교육 수준에 따라 각각의 방책어의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여성 고등학교 및 대학교, 남성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이들 방책어를 전체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어휘 동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은 구어체에서 suppose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문어체에서는 모두 seem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연성의 경우 구어체에서 여성과 남성은 probably를, 문어체에서는 perhaps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적응어에서는 문어체에서 사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문어체에서 남성은 somewhat, a bit, 을 비중있게 사용하였으며, 구어체에서 남성은 sort of, a bit, a little bit 을 많이 사용하였다. 대략어의 경우 about을 남여 모두 구어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문어체에서는 여성의 경우 around, 남성의 경우 about 을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주관성 방책어는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서 남녀는 I think를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어와 문어체에서 여

성은 I wonder를, 남성은 구어와 문어체에서 I believe를 각각 사용하였다.

둘째, 교육 정도에 따른 분석은 고등학교와 대학교로 구분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학 학력자의 방책어 사용이 높게 나타났다. 어휘 동사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자의 구어체에서는 suppose를, 문어체에서는 seem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개연성의 경우 고등학교 구어체와 문어체에서는 probably를, 대학교 학력은 구어체에서 probably, 문어체에서 perhaps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적응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모두 구어체에서 sort of를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하였으며, 문어체에서 고등학교 학력자는 적응어의 사용 빈도가 크게 감소하여 거의 쓰이지 않았으며, 대학교 학력의 문어체는 a bit, somewhat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대략어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자는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about 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미미한 정도로 사용이 되었으며, 대학교 학력자 역시 about을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가장 빈도 높게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대략어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주관성을 나타내는 방책어의 경우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의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서 I think, I believe 순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 남녀의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 대학교 학력자의 방책어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았으며, 또한 여성 대학교 학력자가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보다는 높았고, 남성 고등학교 학력자는 여성 고등학교 학력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교 학력자가 방책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남성 대학 학력자가 가장 많은 방책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Lakoff(1975)가 말한 여성적 언어 형태 가운데 하나인 방책어

가 반드시 여성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방책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방책어는 사회적 힘과 권위와 연관되며, 교육을 많이 받고, 사회적 힘과 권위를 가진 계층이 정중성, 정보 오류로부터 체면 손상의 최소화, 대화에서 특정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각의 성별, 교육 정도에 따른 방책어 사용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학습자들이 담화 전략적으로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방책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자 간의 유대 관계나 화자의 방책어를 청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방책어 사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Aijmer, K.(2002). *English Discourse Particles: Evidence from a corpu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Brown, P. and Levinson, S.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stein, B. (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1).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Channell, J.(1994). *Vague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Clemen, G. (1997). *The Concept of Hedging: Origins, Approaches and Definitions*. In Markkanen, R. & H. Schröder (Eds.), *Hedging and Discourse.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a Pragmatic Phenomenon in Academic Text*. Berlin: Walter de Gruyter, pp. 235-248
-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Canberra: Croom— Helm.
- Crawford, Mary. (1995). *Talking Difference: On Gender and Language*. London: Sage
- Dines, E. R. (1980). *Variation in discourse and stuff like that*. *Language in Society* 9: 13-33.
- Dubois, S. (1993). Extension particles, etc.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79-203.
- Duszak, A.(1997). *Culture and Styles of Academic Discourse*. Trends in

Linguistics. Studies and Monographs 104. Mouton de Gruyter.

Eckert, P. and McConnell-Ginet, S.(2004). *Language and Gen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Jucker, A. Fritz, G. and Lebsanf, F.(1999). *Historical dialogue  
analysis*(pp.296-300). John Benjamin Publishing Co.

Halliday, M. (1970). *Language structure and language function*. In  
J.Lyons(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pp.140-165).  
Harmondsworth: Penguin

Holmes, J.(1982). *Expressing doubts and uncertainty in English*.  
RELC Journal, 13(2), 9-28

Holmes, J.(1988). *Doubt and certainty in ESL textbooks* . Applied  
Linguistics, 9(1), 20-44.

Hübler, A.(1983). *Understatements and hedges in English*. Pragmatics  
and Beyond IV, 6.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B.V.

Hyland, K.(1994). *Hedging in academic textbooks and EA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13, 239-256.

Kay, P.(2001). *Pragmatic Aspects of Grammatical Constructions*. In L.  
Horn and G. Ward, eds., *Hanbook of Pragmatics*, Oxford and  
London: Blackwell

Lakoff, G. (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pers, 8, 183-228.

- Lakoff, R.(1975). *Language and Women's Place*. New York: Harper and Row.
- Lyons, J. (1997). *Semantics. Vols 1 and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uukka, Minna-Riitta, & Markkanen, Raija. (1997). Impersonalization as a form of hedging. In Markkanen, R, & Schröder, Hartmut (Eds.), *Hedging and discourse: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a pragmatic phenomenon in academic texts* (pp. 168-187). New York: Walter de Gruyter.
- Martin-Mrtin, P. (2008). *The Mitigation of Scientific Claims in Research Papers: A Comparative Study*. University of Murcia.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Studies*.
- Mauranen, Anna (2000) “ ‘A good question’. Expressing evaluation in academic speech.” Paper presented at ESSE 5 - 2000. The Fif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nglish, Helsinki, 25-29 August 2000.
- Nuyts, J.(2001). *Epistemic Modality, Laguage and Conceptualization: a cognitive-pragmatic perspective*. Amsterda/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O'barr, W.M., Atkins, B.K(1980). "Women's language or Powerless language?". McConnell-Ginet S., Barker R.& Furman N.(Eds).

*Woman and Language in Literature and Society*, New York; Praeger. pp.99-110

Perkins, D. (1992). *Smart schools*. New York: Free Press.

Prince, E., Frader, J., and Bosk, C.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In R. D. Pietro (Eds.),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Hillsdale, NJ: Ablex.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Harlow, Essex: Longman.

Salager-Meyer, F. (1994). *Hedges and Textual communicative function in Medical English written discourse*. *English for Special Purpose*, 13, 149-170.

Simpson, P.(1990). "Modality in Literary-Critical Discourse". In Nash, W. (ed.) *The Writing Scholar*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pp. 63 - 94.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William Morrow.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s, complaints, and apologies*. Walter de Gruyter.

Tognini-Bonelli, E. (2001). *Corpus linguistics at work*.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Walsh, M. (1996). *Women, Men & Gender ongoing Debates*. Yale University press.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evel of Education and the Use of the Hedges in the ICE-GB**

**Kim, Eun-Ju**

**Majoring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level of education in the use of hedges which are present in the ICE-GB (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The ICE-GB contains one million words used in spoken and written British English, from the 1990s onward. The frequency of the use of hedges is obtained by multiplying one million by the statistical results obtained through using ICECUP 3.1 exploration software. There are five categories of hedges: lexical verbs, probabilities, adaptors, rounders, and subjectivitie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With the first analysis in this study, the aim was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in their use of hedges. The differences were very clear, in that men tended to use more hedges overall. Further, the use of hedges in written English has declined distinctly for both women and men.

The next analysis concentrated on deter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hedges by people from two different educational backgrounds – high school and university. As expected, people with high educational backgrounds used hedges far more frequently.

The last analysis was a comparison between women with high school and university degrees and men with high school and university degrees. The results were that men with university degrees used hedges most frequently, women with university degrees used more hedges than men with high school degrees, and men with high school degrees used more hedges than women with high school degrees.

O'barr and Akins (1980) argued that the language of women and of the powerless is based on social authority or power, not gender. In other words hedges are used among the less educated and among social minorities. Lakoff's view of women's language challenges their findings, as doe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that hedges are neither used more often by women nor by the less educated.

Therefore, hedges are involved in social authority and power: the more educated social majority, the group which holds power, is inclined to use hedges more frequently in order to minimize loss of face through errors of information, achieve specific purposes in conversations, and present an appearance of politeness.

In conclusion, men use hedges more frequently than women, the more educated also use hedges more frequently, and men with university degrees use hedges most frequen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which gender and educational background were analyzed,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important for English learners to pay attention to hedges in order to develop conversational strategies and to improve their understanding of speakers who use hedges.